



# 앉고 서고 자고 뛰고 하는 게 전부 참선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아, 진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디 목욕을 하러 갔더니 미친 사람이 막 뛰어서 채무 스님이 저것 좀 가져 주라고 하도 그러기에 거기서 잠깐 그냥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당에서 막 뛰어요. 기도하고 그냥 나왔죠. 말이 기도지 기도입니까, 어디? 그냥 갔다 그이네를 보는 데 그냥 방편으로 앉았다 나온 거죠. 근데 그 내외가 나와서 그이름 날 참, 뭐니까? 아, 똥 종류 뭐냐?

**대중 가운데서** 카스테라. **크스님** 카스테라. 그렇게 자주 가르쳐 줘야 돼요. 허허허. 그래서 그거를 사 가지고 왔어요. 참 촌뜨기라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봤으니 사람이 그 지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곤 혼났으니깐 인제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추하고 속하고 복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쪽고아서 그걸 국으로 국물을 자주 먹게 하고 나머지는 한 달이 좀 넘으니까 안되겠어서 그때는 강요했어요. 이 김스 풀자고, 산에서 우정 거길 내려가 가지고. 그래 김스 한 거 누가 잘라 줘니까? 그러니까 툼으로 떨어서는 이렇게 하고는 거기다가 다시금 베니어에다 숨을 두르고선 가제로 저거 해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대고선 뉘어 놔요. 그렇게 되면 이걸 쪽 뺨고라도 움죽거리죠. 아무래도 김스 한 거보다 움죽거리죠. 그래서 고스톱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제, 하이고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말이니깐 그렇지 그 집 다섯 새끼가 말입니다. 웅졸웅졸 웅졸웅졸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불쌍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철부지는 글썽, 아버지 제 사상에 뭐 놓고 이렇게 하면요 아, 이거 맛있는 거 사 왔다고 좋다고 들고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고선 동네 젊은 마누라를 한 너덧 명한테 일렸습니다. 매일같이 거기 가서 고스톱을 좀 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보살행이니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냥 고스톱을 하니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한 달이 가 두 달이 가 석 달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단기 시작을 하는데 이 뒤꿈치도 다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쪼끔만 좀 요렇게 됐지. 그러곤 뼈가 부스러져서 모자라는 거는 그 액이 말입니다. 액이 자주 이렇게 붙어 가지고는 그게 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니까 그냥 일어선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리 아파서 못 다니지는 않아요. 미국에, 지금 L.A.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지, 자유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거는 여러분의 근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렇게 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자기 스스로 원력이 생겨서 “아이고, 스님! 스님!” 하고는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허허허, 아니, 지금 세상에, 까고 까고 까고 이렇게 된 세상에 누가 이익이 없는데 날 찾아오고 좋다고 합니까? 아니, 밥을 먹으러 가자고 누가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도 없어요. 돈 내버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좋아하는지 하더라도 나를 믿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믿어라 하는 것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가깝게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바깥으로 부처님을 멀리 찾느냐 이겁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 마음에 있다.’ 아까 노래도 하셨죠? 설법을

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이것이 거기서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다시 뭉쳐 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이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머니 저머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아주, 분하게 되고 그냥 이거는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되죠.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으로 또 끄달려서 그렇게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움죽거리고 살면서 생활에서 그냥 그 참선인 줄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 그 참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좌선이며, 좌선은 모든 걸 떨치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라 합니다. 그러니 돌로 보지 마십시오.

때문에 하나 해 놓는 데 자기가 그 백분지 일 이 없어도 또 하나 하는 데에 또 없어도, 하나 하는 데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왜, 붙이 되면 고드름 조금조금 떨어지는 거 있죠? 아주 얼어붙은 게 조금조금 떨어져서 녹아요. 그렇게 붙이 올 수 있다 이 소입니다. 이거는 장담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자4(남)** 스님,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신도들이 마음공부를 계속하다가요. 다 깨치기 전에 옷을 벗고 다음 생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크스님** 그거 한생각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내 주인공만이 내 무명을 벗기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명을 벗고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험도 안 해 보고 날 가지고 뺨히 쳐다보고 ‘저 이가 미쳤잖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면서 경험을 얻고 체험을 얻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가자마자 보니까 그냥 양면으로 좌악 사람들 이 서 가지고 인군을 뽑는 날이더랍니다.

그런데 인군을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인군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이 인군을 뽑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금테두리를 하고 그러고선 말이 척 나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앞에 가도 탁 뿌리치고 뿌리치고 뿌리치고 이리하고고선 나오더니, 보따리 맨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앞에 이렇게 놓더니만 궁둥이를 탁 맨 거예요, 타라고 이 다리를 꾸부리고 앉아서, 그러니깐 그 보따리 맨 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려고 안 되고 그러더니 그 사람을 타라고 딱 올려놓으니까 착 일어나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궁으로. 그래서 인군이 됐어요.

그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더불어 같이 이익 하게 생각을 하세요. 꿈을 꾸고도 이익 하게 생각하고요, 생시에도 이익 한 생각을 하시고, 자식들한테도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망해라. 뭐 네가...” 싸움하고는 뭐 별소리 다 합디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그렇게 그냥, 그냥그냥 재각재각 떨어진다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낱으로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화로 간다면 이 세계에 아마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겁니다. 그리고 한인 회관이 빛이 날 겁니다. 그뿐입니까? 불교인들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될 겁니다. 아니, 불교인뿐만 아니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 한국인들은 전부 한마음이 될 겁니다. 아아, 아니,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왜 갈라질까, 한인들이? 아니, 그건 그것대로 믿고 이젠 이것대로 자유지, 믿으면서도 마음은 왜 그렇게 갈라질까, 또? 이상하잖아, 요상하고, 난 참 이상하고 요상해요. 그러면 인제 그만 끝내도 될까요?

여러분! 인제요, 꼭 명심하시고 모든 것에 아무리 아는 게 많으시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하, 나는 관리인밖에 안 되는구나. 내 주인공의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돈이 한탄히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내 돈이라고 한다면 그저 쓸 데 안 쓸 데 그냥 자주 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쯤 아세요.

※ 위 법문은 1991년 3월 17일 뉴욕지원 법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내 주인공만이 내 무명을 벗기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명을 벗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거를 그냥 가사로 붙여 버렸어요. 글썽. 그리고 지금 한마음선원에는 선법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 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법가가, 설법하는 데 이렇게 물어 놓는 거를 다 그냥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자3(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 말씀 중에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참선하던 중에 아무 생각도 없는 적막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적막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무심의 상태하고 공에 빠진 상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크스님**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만,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이 내내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목석이지 그제 사람입니까, 어디? 공에 빠지면, 그러니까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말라 하는 뜻은,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다 하면 돌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르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을 하고요. 또 자의에서도 괜히 화가 나고요. 괜히 하

고리고 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주가 훌륭해서 여러분의 그 재료를 내가 가지고선 다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애고, 그 괴로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면서 지극한 정성과, 즉 말하자면 보이는 데서도 정성, 안 보이는 데서도 내 마음으로 정성, 항상 거기 놓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훌륭한 자기 자력이 되고 또 식구들의 제삼자 하나하나가 바로 견혀 들어갑니다. 모든 업과 모든 병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다들 뭐 수정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성이라 하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나를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정성입니다. 자기입니다. 나를, 이 고깃덩어리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정성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남 주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 갖다 꽃아 놓는 것도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겁니다. 자기 거기

장사꾼인 줄 아십니까?

하어튼, 그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 한번 할까요? 두 친구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서죠. 그래서 일주일 장을 볼 양으로 두 친구가 갔는데 아,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이, 사기꾼이 말만 잘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참 이 세상의 왕 같구나. 참 저 사람은, 내가 저 소릴 들으니까 정말이지 저 부처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감동이 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길에 쓰러졌어요. 주막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니까, 새벽이면 옛날에는 우마차가 그냥 백대 이백대 이렇게 막 갔거든요. 그냥 거기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글썽, 그 동네에서 그 돌이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혼자만 들어갑니까? 그 친구는 흠여머리가 계신데,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고 그 옷감을 산 보따리를 짊어진 채 강을 건너서 판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음악에세이 &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